

올 여름 더위 날려줄 3극3색 연극 광주 온다

공포 특집 '흉터' 6월22일-7월23일
코믹 장르 '조각' 7월27일-8월27일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매주 화~일
성인 위한 유쾌한 19금 '죽어야...'
7월13일-8월27일 기분좋은극장서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공포스런 무대부터 서울 대학로 히트작과 유쾌한 성인극까지, 3인 3색 아닌 3극3색의 연극작품들이 광주서 펼쳐진다.

먼저 오감만족 공포 스릴러 장르의 연극 '흉터'가 오는 22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첫 포문을 연다.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초연된 '흉터'는 치밀한 구성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 상상 이상의 잔인한 반전을 통해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극은 지은·재용·동훈 세 친구가 등산을 갔는데, 등산 중 지은이 의문의 돌연사로 죽게 되면서 시작된다. 지은이 죽고 8년 뒤 재용과 동훈, 두 남자는 다시 산을 찾았고 8년만의 등산에서 마주하게 되는 기억과 진실이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같은 사건으로 갖게 된 다른 상처 속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이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연극 '흉터'는 크고 작은 죄책감에 대한 '기억'과 그로 인한 마음의 '흉터' 그리고 아물지 못한 '흉터'를 상기시킨다. 작품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관객 스스로 상처



공포 스릴러 장르의 연극 '흉터'가 오는 22일부터 7월23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기분좋은극장 제공**

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7월23일까지 진행되는 '흉터' 공연 시간은 화·수·목·금 오후 7시30분, 토·일 오후3시와 오후 6시다. 중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러닝타임은 90분이다. 티켓가격은 전석 3만5000원이다.

공포 특집 2탄은 코믹함이 더해진 연극 '조각'이다. 2015년 서울 대학로에서 초연을 올렸던 '조각'은 4년 연속 예매율 1위를 유지하며 대학로 인기 공포 연극으로 자리 잡았다. 코믹과 공포를 적절히 분배해 웃기면서도 무섭고 무서우면서도 재미있는 매력으로 많은 관객의 눈길

을 끌었다.

극은 비 내리는 어느 여름 날 한적한 시골마을에 강도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된다. 강렬하고 음산한 음향효과와 스산한 무대장치는 관객들에게 공포감을 선사한다. 특히 '심인성 기억상실증'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차용하고 있어 호기심을 더한다.

'조각' 공연은 오는 7월27일부터 8월27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공연시간은 화·수·목·금 오후 7시30분, 토·일 오후3시와 오후 6시다. 중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러닝타임은 70분이다. 티켓가격은 전석 3만5000원이다.

장마보다 끈적끈적한 오직 어른들을 위한 유쾌한 19금 연극도 준비돼 있다. 연극 '죽어야 사는 남자'는 서울 대학로의 대표 19금 공연으로 어른들만의 은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극은 특정 단어를 듣는 순간 아찔한 반응이 생기는 불치병을 가진 남자와 같은 증상을 가진 여자가 만나 진정한 사랑을 꿈꾸게 되는 이야기다. 19금 타이틀에 걸맞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화끈한 장면들이 관객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전한다.

'죽어야 사는 남자' 공연은 오는 7월13일부터 8월27일까지 서구 상무지구 기분좋은극장에서 진행된다. 공연시간은 화·수·목·금 오후 8시, 토일 오후3시와 오후 6시다. 만 19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러닝타임은 90분이다. 티켓가격은 전석 3만5000원이다. **도선인 기자**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작가로 선정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모리 유코의 <I/O>(2011-2023)작품.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모리 유코,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작가로 선정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모리 유코(Yuko Mohri)와 예술감독인 이숙경 씨가 내년 열리는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작가와 큐레이터로 각각 임명됐다.

18일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모리 유코가 내년 4월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열리는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작가로 선정됐다.

또 이숙경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일본관 큐레이터로 임명돼 일본관의 첫 외국인 큐레이터가 됐다.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커미셔너인 재팬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은 최근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참여 작가 및 큐레이터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1980년 가나가와현 출생인 모리 유코

는 현재 도쿄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설치미술가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 모리 유코는 외부 전시 공간 중 하나인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의 유리로 된 건축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해 장소특정적 생태계를 조성했다. 작가는 소설가 한강의 '흰(2016)'에 영감을 받아 <I/O>(2011-2023) 설치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며 파도를 형상화하는 포물선 모양의 흰 종이와 돋보이는 구조물이다.

모리 유코는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을 통해 기후 위기 등 동시대 상황 속에서 '예술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계획이다. 제23회 시드니 비엔날레, 제34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제14회 리옹 비엔날레 등에 참여했으며, 프랑스 퐁피두 센터, 홍콩 앵플러스 미술관 등지에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여름방학에 문화예술 직업 미리 경험해 보세요”

ACC 대학생 대상 '직군탐색' 융·복합기획자 등 4개 직군

여름방학을 맞아 문화예술 분야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문화예술 분야전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군별 이론과 실무현장을 경험하는 '2023년 여름방학 ACC 직군탐색' 심화과정을 오는 7월6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융·복합문화기획자(7월6일~7월29일) △사운드엔지니어(음향기술자 7월26일~7월29일) △전시테크니션(전시기술자 8월9일~8월30일) △디지털아카이비스트(디지털 자료 보존 관리 전문가 8월10일~8월31일) 등 4개 직군의 탐색과정으로 구성했다.

강좌는 각각 8차례로 진행되며, 4개 분야별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ACC 극장3과 문화창조원 등에서 실무교육을 한다. 현장탐방, 비대면 수업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융·복합문화기획자 강좌는 '기후위기 시대 융·복합문화기획자의 역할'을 주제로 문화기획자의 역할, 전시 실무 및 사례에 관한 강의, 현장실습 및 과제 발표로 진행한다. 조주현 전시기획자 등 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사운드엔지니어(음향기술자) 강좌는 권지휘 미스터어쿠스틱스 대표 등 3명의 강사가 펼치는 극공연, 녹음실, 후반 작업 분야 강의와 함께 현장실습으로 채워진다.

전시테크니션(전시기술자)를 꿈꾸는 이를 위한 교육은 전시기술 기초 이론과

조명, 영상, 음향 분야의 실습, 현장학습으로 꾸며진다. 김형욱 감독과 허동혁 음악가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디지털아카이비스트(디지털 자료 보존 관리 전문가) 강좌에선 김선혁 레벨나인 대표, 주은정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권태현 기획자 등 현장 전문가의 이론 및 사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디지털 자료(아카이빙) 실습'도 체험할 수 있다.

강좌별 심사를 통해 20명을 선발하며, 희망자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사운드엔지니어 프로그램 수강생 중 광주지역 외 거주자에게는 숙소도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23일 제4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후창 김택술 학문과 사상 주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북대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후창 김택술(1884-1954) '후창집' 완역 기념으로 제4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후창집'은 간재 전우의 수제자로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가이자 유학자, 문장가, 교육자로서 당대를 풍미했던 김택술의 문집으로 국권 수탈, 광복, 6·25동란 등 격

변의 시간 속에 일평생을 지냈던 그의 학문과 사상이 집약된 책이다.

총 3부로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후창집을 통해 본 후창 김택술의 학문과 사상'을 주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나상필(한국학호남진흥원)의 사회로 △배제성(성균관대)의 '후창 김택술의 사상 특색' △김승룡(부산대)의 '후창 김택술의 시문 특색 연구'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2부는 한문종(전북대)의 사회로 △박순철(전북대)의 '후창 김택술의 교육 사상과

제도' △함영대(경상국립대)의 '후창 김택술의 역사인식과 대처'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3부는 종합토론으로 최영성(한국전통문화대)을 좌장으로 이항성(전남대), 전성건(안동대), 김영(전북대), 유지웅(전북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멸실 위기에 처한 호남지역의 민간기록문화유산을 조사·수집 및 보존·관리하며 연구성과를 집적하고, 호남학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